

# 노숙자 지친 몸과 마음 정성껏 치료



신행연장

선재의료회 서울역 봉사

노숙자들의 좋은 벗이 됨으로써 보리를 이루겠다고 원을 세운 사람들. 선재마을 의료회(회장 강경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서울역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그들의 진료는 단순한 진료라 아니다. 바로 몸이 아픈 수많은 세간의 부처님들에게 모든 정성을 바칩으로써 보리를 이루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수행의 한 방편이다.

16일 저녁 8시 30분. 선재마을의료회의 서울역 무료진료소에 삼에 지친 노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연이어 들어온다. 10명 남짓한 좁은 공간에 꼭 들어찬 환자와 봉사자들이 뒤엉킨 속에서 약사인 최영숙 보살이 약봉지를 받아주고 나가려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약 복용법에 대해 이해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할아버지, 이 약은 점심때 먹고요. v자로 표시한 약은 꼭 저녁에 먹어야 해요. 바뀐서 먹으면 효과가 없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이날 의료봉사에 참여한 선재마을의료회 회원은 의사 2명, 약사 2명, 간호사 3명 그리고 서울역 무료진료소 운영회원 3명이다. 여기에 서울대 의대불교학생회 회원 3명과 서울간호대 학생 2명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99년 4월, IMF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사람들의 마음이 나락으로 가

리앉았을 때 대불련 출신 의사인 강경구 양재수 김경현 씨가 주축이 돼 "불자로서 '보살행' 의료행" 지역행"을 하자"고 마음들이 모아지면서 선재마을의료회(www.senjae.com)가 창립됐다. 회원은 의사 36명, 치과의사 27명, 약사 3명, 간호사 40명, 한의사 2명, 도우미 및 임원 15명, 진료지원 학생 7명.

선재마을의료회는 창립 이후 강남 봉은사에 진료소를 개설하고 매주 일요일 봉은사에서 외국인 노숙

## 매주 수요일 무료진료

## 일요일엔 봉은사에서

## 99년4월 봉사 시작

## 의사등 회원 130여명

자와 극빈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모두 90차례에 걸쳐 외국인 5천여명 등 총 1만여명을 무료 치료했다.

여기에서 올해 4월 4일부터는 서울역에도 노숙자 무료진료소를 개원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3시간동안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총 200여명의 서울역 노



선재마을의료회가 운영하는 서울역 무료진료소에 노숙자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고있다.

숙자를 진료했다. 서울역 노숙자진료소에는 재진환자가 30%이상 차지할 만큼 노숙자들의 호응도 커지고 있다.

노숙자 장진권씨(77세)는 "타종교에서도 다른 날 서울역에서 의료봉사를 하지만 불교계에서 하는 이곳에서 치료받고 싶어 저녁도 굶고 왔"다며 "이곳에 올 때마다 불교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집에 돌아가면 절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노숙자를 간이 침대에 눕혀 놓고 진료를 한 뒤 꼼꼼하게 병에 대한 상담까지 곁들이던 문동규거사(상계동 문동규내과 원장)는 "하루 일과를 서둘러 마치고 상계동에서 서울역까지 시간에 맞춰 와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심으로 환자를 돌보나 마음이 편하

고 흐르다"고 말했다. 김중화거사(대림동 김중화이비인후과 원장)도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고 답했다.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강진희(서울간호대 2학년)는 "진료현장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운 곳을 찾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재마을의료회 서울역 노숙자무료진료소 운영을 총괄하는 장범중·송미기부부는 "서울역 무료진료소는 개인들을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중생 구제법 중 하나이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역 400여명의 노숙자들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 생활속의 불교

## 하루살이로 살라

우리들 모두는 수행자다. 세속의 인연을 떨쳐버리지는 않았다 해도 삶의 목표를 진화에 두는 한 우리는 모두 수행자다. 아니, 세속에 발이 묶여 도무지 도(道)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는다 해도 삶이 곧 진화나 퇴화의 갈림길일진대 우리 모두는 원한건 원하지 않건 간에 수행자일 수밖에 없다.

수행자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발에 뿌린 마음의 씨앗은 영겁을 두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내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과보가 돌아 올 것이고 게으른 마음을 심으면 보잘 것 없는 결과가 돌아올 것이며,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어찌 한 순간인들 방심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매 순간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씨앗, 가장 질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괴로운 일은 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고 오로지 즐거움 일, 흡족한 과보는 내 것이기를 간절히 원한다. 물론 그것은 가능하다. 누구에게라도 가능한 일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순간,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선행이고 참회이면 된다. 지금 여기가 그대로 수행처면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하루살이'로 산다. 하루살이라니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찰나주의 향락주의의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식의 삶을 산다. 지금 여

기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산다.

수행자들과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 점에서 다르다. 우리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생각하고 내일에 희망을 건다. 내일이면 사정이 더 좋아질지, 오늘은 여건이 적당하지 않으니 내일을 기약하자...는 식에 더 익숙하다.

그러나 내일은 없다. 오늘이 있을 뿐이다. 내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결과로서 내일이, 오늘과 무관한 내일은 없다. 고로 다가올 모든 내일은 오늘 속에 있다. 오늘 최선을 다 하면 최선의 내일이 그 속에 있고, 오늘 방일하면 흐트러진 내일이 또 그 속에 있을 뿐이다. 수행자는 그래서 하루살이로 산다. ■龍眼

## 주제가 있는 법문

# '범죄없는 불국토 만들기' 경찰포교 체계화 필요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피라."

(중아함경)에서는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이 필수적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의 지평이어서 법에 따라 치안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여년전부터 경승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경찰포교는, 경찰관들의 신생활을 통해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각급 유치장의 유치인 교화 등으로 이어져 깨달음의 사회화를 이룬다는 측면

## '경승단 창립 14주년 계기 15만 경찰 부처님품으로'

에서 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사업과 지역내 불우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통해 우범자와 비행청소년을 계도하면서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15만 경찰관들을 부처님품으로, 지역 불자들의 신행을 자비·보살행으로 인도하는 경승들의 활동은 민생안정과 사회질서 구현에 많은 이바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경승 출범 당시 가졌던 원력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몇명의 스님들이 어떤 자격으로 경승의 역할을 받았는지, 경승들이 경찰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경승단 차원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승에 대한 교육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일부 경승들은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고 경승이라는 명함에만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 포교의 대원력은 사라지고



성인스님 부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일부 경승들은 포교능력과 관리 업무능력을 상실해 경찰포교가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선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경승단은 창립 14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20년전 경찰포교에 대한 초발심을 상기하면서, 경승단을 창단한 그때 그 원력으로 새로운 전반기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종단과 불자들은 무관심에서 벗어나 경승활동을 지원하고, 명실상부한 경찰포교 조직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레아만 폭력과 범죄가 없는 사회, 걱정과 불안이 없는 사회, 따뜻한 인간미와 정이 넘치는 불국토를 이룩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 경승들도 맑고 깨끗한 사회, 회망이 가득한 나라를 이루는데 이바지해야 할 과제가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을 건너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 인도하면 뒤따르는 많은 소들이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너듯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스님들이 전륜성왕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은 갓 곁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대비심(大悲心)을 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은 세상의 낱알 이웃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무명장을 지내면서 그들의 덕을 충만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려두고 모른 채 하지 않으리라.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無我)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을 구제하면서도 그 일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이어받아, 직접 자비의 실천행을 펼쳐보십시오.

## 신행 캘린더

5월 23일(수)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불교방송 신행상담실을 진행하는 지목스님을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2)719-1855

5월 24일(목)

■조계사 신중기도 철야법회=조계사는 오후 8시부터 25일 새벽 4시까지 대웅전에서 신중기도 철야법회를 봉행한다. (02)735-3724

5월 25일(금)

■대전지역불자언론인회 창립법회=대전지역불자언론인회는 오후 7시 백제불교회관에서 장곡스님(백제불교회관 관장, 감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042)483-8214

5월 26일(토)

■불기월 가족체육대회=한국불교기자협회는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농장 야구장에서 춘계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2)722-4162

■유니텔 불교동호회 전국모임=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 나라를 경주 남산에서 전국모임을 개최하고, 용장사, 칠불암 등 경주 남산 일대 성지순례를 갖는다. (02)3479-4508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보조사상연구원은 오후 1시 동국대 제1세미나실에서 제36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02)733-5335

■(사)맑고향기롭게 선(禪) 수련회=(사)맑고향기롭게는 오후 3시부터 27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김상사에서 선 수련회를 갖는다. (02)741-4696

■군포교구포교=조계종 포교사단은 오후 4시 서울 봉은사에서 군포교구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7-7588

5월 27일(일)

■진감선사 차례제=13교구 본사 쌍계사는 오전 10시 진감선사 부모 앞에서 진감선사 차례제를 봉행한다. (055)883-19015

5월 29일(화)

■능인선원 동자구청가정법회=능인선원은 오전 10시 30분 동자구립묘지에서 동자구 총가정 법회를 봉행한다. (02)847-9462

■동국대 춘계법회=동국대는 오후 4시 중강당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직지사 조실)을 계사로 모시고 춘계법회를 봉행한다. (02)2260-3114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술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 구중구로(2개월 150만원), 유허간장(2개월 50만원), 유허된장

###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쳐가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유고(경유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은 물론이고 저당과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 제조법인 호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호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정심 올림